"전북교육의 비전 창출하는 인재 찾습니다"

전북교육청, 교육전문직원 43명 공개 선발… 내달 22일까지 접수

전북교육청이 교육전문직을 공개 선발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의 혁신과제 수행과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현장지원 업무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교육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유치원교원 4명, 초등교원 18명, 중등교원 21명 등 총 43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교육전문직은 원감 2명·교사 2명, 초등교육전문직은 교감 5명·교사 13명을 선발한다.

또 중등교육전문직은 교감 1명, 교사 전문분야 농업 1명·전문상담 1명·특수 1명과 일반분야 17명 등 총 2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중등교육전문직원은 일반분야 선발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국공립 유초중등 교원과 중등 사립학교 교사로서 2019년 3월 1일 기준교육경력 12년 이상인 사람과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유치원교사는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교직교사 경력 제한이 없다.

교육전문직 희망자는 응시원서 및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근무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4월 22일 오후 5시까지다.

이후 도교육청은 소양평가, 현장평가, 역량평가 등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소양평가는 정책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을, 현장평가는 직무수행계획서, 교육활동 실적평가, 인성 및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진행된다.

또 심층면접과 상호토론·토의를 하는 3차 역량평가를 거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범죄, 학생상습폭행 등 4대 주요비위 및 그에 준하는 비위 징계 전력자는 응시가 제한되며, 외부평가위원을 50% 이상 포함시켜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위센터 '같이의 가치' 큰 호응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 위(Wee)센터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초등5~중3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년 상담주간 '같이의 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관내 방과 후 상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성격검사인 LCSI를 활용하여 신청자들의 성격과 욕구,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이해를 높여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는 14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첫 주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위(Wee)센터에 방문하여 개인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2주차에는 실시한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심리검사 결과에 근거한 성격유형별 모둠 작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주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희망자들에게는 검사를 활용한 추가적인 방과 후 개인상담 및 심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혜경 장학사는 "부모와 자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6일 전주대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15명과 한국 가정 15곳이 가족으로 맺어졌다.

'관심과 배려, 사랑과 격려' 는 낯선 생활에 큰 힘

전주대 유학생 호스트 패밀리 결연, 한국 가정과 1:1 매칭… 만족도 높아

"외국인 학생에게 전주가 가장 행복한 도시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곁에 있는 유학생을 향한 '관심과 배려, 사랑과 격려'는 낯선 한국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6일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결연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15명과 한국 가정 15곳이 가족으로 맺어졌다고 밝혔다.

전주대 호스트 패밀리는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3년 동안 180여 명의 유학생과 한국 가정이 인연을 맺었다. 중국 유학생과 한 가족이 된 정명환 씨(전주시 덕진구)는 "중국 유학생들이 넉넉잖은 형편에 한국에 유학 와서 어렵게 적응하며 공부하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교류원장 류인평 교수는 "지역사회의 많은 가정이 유학생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공공외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호스트 패밀리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로 격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스트 패밀리는 홈스테이처럼 유학생이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전주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의 통로로 인정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놀이밥퍼' 학부모 자원활동가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에 함께 할 학부모 놀이활동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9 학부모 놀이활동가 '놀이밥퍼' 교육을 4월 8일부터 27일까지 도교육청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실시하며, 도내 학부모 100인을 대상으로 접수순 신청을 받는다.

학부모 놀이활동가 '놀이밥퍼' 교육은 '놀이밥 60+ 프로젝트'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놀면서 배우는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한 학부모 자원활동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소영 작가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만나는 꿈의 놀이터'를 시작으로 김창호의 '숲밧줄 놀이', 황경택의 '숲 생태놀이', 강한춘의 '전래놀이', 방승호교장의 '위로받고 꿈을 찾는 기적의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4월 8일까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parents.jbe.go.kr) 또는 스마트폰 (parents.jbe.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서곡중 - 한중영사모 업무협약 체결

전주서곡중학교(교장 김항윤)에 한중국제영화제 이사장과 서포터즈인 한중영사모 회원들이 방문했다.

서곡중학교에 따르면 한중영사모와 26일 오후 4시 본교 교장실에서 김항윤 교장과 학교관계자, 한중영화제 조근우 이사장 및 한중영사모 전북지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중영사모는 서곡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지원과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화에 관심과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미술·국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항윤 교장은 "한중영사모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근우 이사장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국의 학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전북 영사모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곡중학교는 아름다움과 꿈이 있는 학교를 비전으로,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 펜싱의 위상 한단계 도약

이리여고 펜싱경기장 신축

이리여자고등학교(교장 송내경)는 올해 펜싱경기장을 신축, 펜싱학생선수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고 밝혔다.

이리여고 펜싱부는 사브르, 에페 2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사브르 단체전 및 개인전 1위, 에페 단체전 및 개인전 5위, 제29회 한국중·고펜싱협회장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사브르 단체전 및 개인전 1위, 제47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에페 단체전 2위 등 각종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종목별 단체전 및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고, 최효주(충북도청, 에페), 양예솔(호남대, 사브르), 최수연(안산시청, 사브르) 등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면서 매년 좋은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현재 이리여고 펜싱장은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철거를 앞둔 조립식 건물로서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데다 면적이 협소하여 한 종목은 타 학교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기합소리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훈련에 제약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 동안 펜싱발전을 위해 수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에 공헌해 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영규 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올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지원받아 이리여고 부지에 신축하게 되는 펜싱장은 경기장 규모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펜싱경기장은 피스트 6개를 구비한 훈련장, 탈의실, 샤워실, 체력훈련실, 선수휴게실 등을 갖추게 되어 학생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익산지역 청소년 펜싱부와 합동훈련 및 각종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게 됨으로써 익산 지역 청소년 펜싱선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익산시가 명실공히 펜싱의 메카로 부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전북펜싱협회 협회장인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리여고 펜싱경기장 시설 사업의 추진으로 이리여고 펜싱부가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익산 펜싱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